희망을 찾아서

'2008년 베이징장애인올림픽'
시각장애 유도 경기 4위 결정자

중학교 3학년부터 시작한 유도. 2003년 시각장애 판정을 받기 전까지 그는 비장애인으로 선수 활동을 해왔다. 어릴 때부터 시력이 안 좋았지만 그저 시력이 조금 떨어질 뿐 병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심해져서 더 이상 비장애인과 시합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결국 장애판정을 받았고 2008 베이징장애인올림픽 시각유도부문에 출전하여 메달 획득에는 실패하였지만 의미 있는 4위를 할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 유도
쿠키대표 박정민 선수

그는 이번 올림픽에서 상대 미국 선수에 대한 일방적인 중국 관중의 응원과 심판의 편파적인 판정이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동메달을 향한 3,4위전에서 절반과 유효로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던 상황에서 경기 종료 10초를 남겨놓고 퇴장을 당하고 말았다. "입술의 피를 지혈하기 위해 의사를 요청해서 치료를 받고 경기를 계속했는데, 거의 이긴 상황에서 경기 종료 10초를 남겨두고, 의사를 세 번 요청하면 퇴장이라는 사실을 뻔히 아는 심판이 다시 의사를 부른 행위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지금도 매일 운동을 하고 있다는 박정민 선수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출전하여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안내를 시작할 때

"안내해 드릴까요" 말하고 당신의 팔꿈치를 내밀어 주세요.
상황에 따라서는 당신이 시각장애인의 팔꿈치를 잡도록 하여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에 걸어가는 주변 상황을 말로 설명해 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신다면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25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기관입니다. 후원자님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의전화: 02-9500-103)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국민은행: 835-01-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손으로 보는 세상 | 제14권 10호 통권 99호

2008년 10월 1일 발행

발행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및 편집인 : 권인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전화 : 02-6925-1114 _ 팩스 : 02-6925-1117
Homepage : www.kbuwel.or.kr
E-mail : kbuhongbo@hanmail.net
우)150-8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호 이룸센터 3층 305호

제작 : 쥬비컴 디자인전문회사
전화 : 02-2091-1255 _ 팩스 : 02-2091-1253

표지이야기 : 좌상단 : 2008 베이징장애인올림픽 대표선수단 입장 / 우상단 : 2008 베이징장애인올림픽 시각축구 좌하단 : 제1차 어울림등산축제-광덕산 / 우하단 : 불꽃클럽최강전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2차원바코드가 실려 있습니다. (우측상단)

테마기획 - 흰지팡이날

시각장애인에게 흰지팡이란?

첨단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에도 세계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흰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지팡이가 흰색인 것은 지체장애인이나 노인의 보행에 쓰이는 다른 지팡이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며, 시각장애인 이외의 사람에게는 흰색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흰지팡이날' 기념행사

매년 10월 15일이되면 '흰지팡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식과 동전 쌓기, 과일껍질 깎게 깍기 등 각종 행사를 갖습니다.

'흰지팡이'의 개념은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에서 공식 채택되었으며, 1931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국제 라이온스대회에서 흰지팡이의 기준이 설정되었고, 그 후 미국 페오리아시에서 개최된 라이온스클럽대회에서 "페오리아시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흰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흰지팡이에 대한 최초의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62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시각장애인에게 흰지팡이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각장애인들도 사회가 보호해야 하며,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제창하였습니다.
그 후 1980년 당시 세계맹인연합회가 10월 15일을 "흰지팡이날"로 공식 제정하여 각국에 선포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10월이 되면 시각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복지 한마당 행사를 진행, 흰지팡이가 상징하는 각종 행사를 가져 시각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할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